

보도설명자료

(’22. 10. 1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는 UPS 안전기준 제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

(10.19일자 조선일보 「데이터센터마다 ‘ESS 폭탄’...제2 카톡 사태 우려」
및 「지하에 배터리 몰려있어 진화 난항...지상으로 옮겨야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보도내용

□ 데이터센터마다 ‘ESS 폭탄’... 제2 카톡 사태 우려 관련

- 이번 화재 시작된 배터리 ‘ESS’ 전기차·태양광·풍력에도 사용
전문가 “안전규정 정비해야”
- UPS(무정전 전원장치)용 예비 배터리와 같이 사실상 ESS역할을
하면서도 법규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산업부는 ‘22.5월 발표한 ESS 안전강화대책을 통해 ESS 운영관리
강화, ESS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ESS의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·
강화해 나가고 있음 ※ ’22.5.3 산업부 보도자료(ESS안전강화대책) 참고

□ 특히, 안전관리 사각지대*에 있던 UPS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
업계 의견수렴(~’22.4), 특별 안전점검(’22.4.21~6.17), 공청회(’22.9.30) 등을 거쳐
UPS 안전기준(안)을 마련하고,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임

* ESS(피크저감 등)와 UPS(비상전원)는 용도와 기술적 측면 등에서 상이하고, 최근 경제성
(수명, 설치면적)으로 인해 UPS에 주로 사용되던 납축전지가 리튬배터리로 교체되고 있음

□ 앞으로, 산업부는 UPS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는
한편, UPS 안전기준을 신속하게 제정하는 등 UPS 안전관리 강화를
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

※ 문의 :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(044-203-3980) / 정해진 사무관 (3984)